



전남매일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자체간 화합을 다지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2회 광주·전남 시·도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박철홍 전남매일 회장과 임성자 (재)골드클래스문화재단 이사장,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박홍석 대한적십자사 이사장, 장병완·이개호·송갑석·서삼석·최경환·송금주 국회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승현 광주시부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양항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김종채 임방울국악재단 이사장, 김창준 광주시체육회 상임고문, 소영민 31사단장, 권오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박상철 광주지방조달청장,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김일수 광주농협 본부장, 박용구 곰두리봉사회장, 김광란·김나윤·김용집·김익주·박미정·김학실·송형일·신수정·이경호·이정환·이홍일·장재성·정무창·조석호·황현택 시의원,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경미 광주시 안전정책관, 최갑열 제1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원우회장, 박상균 보광건설주 대표이사, 박수범 골드에스비건설주 대표이사 등이 출발에 앞서 안전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초가을 만끽, 시도민 건강 다졌다

본사 주최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화합 다져  
1천여명 참여 천변자전거도로 4.2km 구간 걸어  
팝콘 나누기·페이스페인팅 등 부대행사 풍성

제2회 광주·전남 시·도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가 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전남매일이 주최하고 JM스포츠가 주관한 이번 걷기대회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체육회,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체육회가 후원했다. ▶화보 10·11면

전남매일 창간 3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자체 화합을 다지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걷기대회는 광주·전남 시도민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제1회 대회는 태풍으로 인한 늦은 날씨로 광주시민의 숲을 걷는데 고쳤지만 올해는 시청 야외음악당을 출발, 천변자전거도로를 따라 약 4.2km 구간을 가족, 친구, 형제자매와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정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했다.

걷기대회에 앞서 열린 식전행사는 스타리 댄스팀이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이어 '별일이야'

의 유연주, '어화둥둥'의 김하준, 고맹이, 김상배 등이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의 흥을 고조시켰다.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는 대회사에서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내 최고의 걷기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코스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천변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는 4.2km구간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도심속 최고의 힐링코스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창한 가을날, 건강 걷기대회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소중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명한 날씨에 축복받은 대회가 될듯하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대회가 참가한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예전에는 사회적담론의 중심 주제인 교육론의 핵심적인 세가지 체계로 '지적체'를 말했지만 요즘은 바뀌어서 '체인지'라고 한다. 체육, 인성, 지성의 앞 글자를 딴 말로 건강과 체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라며 "오늘 걷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체인지'하는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걷기대회는 대략 1시간여가 소요됐으며 부대행사로 페이스페인팅, 팝콘 나누기, 도박중독 예방 체험, 임신출산 체험, 혈압체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걷기대회 행사 이후에는 경품권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드림세탁기, TV, 에어컨, 노트북, 블루투스스피커, 자전거 등 경품의 주인공을 뽑았다. /최진화 기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광주 유망기업들 '실리콘밸리 꿈' 도전

벤처캐피탈서 투자설명회

인공지능(AI)·드론·문화콘텐츠 등 미래 경쟁력을 갖춘 광주 유망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뗀다.

광주시는 8일(현지시간) 티디엘, 넷은 등 7개사가 SOSV(Sean O' Sullivan Ventures) 벤처캐피탈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달에도 공간정보, 인디제이, 지니소프트 등 3개사가 빌더스 벤처캐피탈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가기업 7개사는 슈퍼컴퓨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광주시장 인공

지능 기술고문인 김문주 박사가 컨설팅을 통해 직접 선발했다. 투자설명회가 개최되기까지 한 달여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실리콘밸리 맞춤형 영어 발표 준비 등을 지원했다.

SOSV는 1994년 설립된 투자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 투자자 발굴 등 창업 초기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700개 이상 스타트업이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매년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새로 발굴하고 있다.

지역기업들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의 장점과 경쟁력을 집중 소개하며, 기술협력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요청했다. /황애란 기자

정부, 태풍 피해 산물벼 매입

전남도는 올 가을 세 차례의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산물벼나 건조벼로 정부가 매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조벼로만 매입할 경우 농민들이 벼 건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을 감안,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산물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피해 벼 정부 매입은 일반 공공

비축미 매입과 달리 시·군별로 지정된 품종에 제한하지 않고, 지난해 품종혼합으로 패닐티를 받은 농가들도 참여토록 했으며, 농가가 직접출하 또는 농협을 통해 출하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건조벼로만 매입키로 했었다. 하지만 전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지역농협 RPC를 통해 산물벼로도 매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 농가나 부녀자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가을철 농번기 일손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기자

중흥

### 나주호를 누리는 명품 골프클럽

나주호의 쾌적한 VIEW, 여유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36홀 명품골프클럽 -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www.goldlake.co.kr

###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GOLDLAKE COUNTRY CLUB

수려한 산세와 나주호수를 그대로 살린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예약 문의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061-339-3000